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이스라엘의 시험 [사사기 3:1-11]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3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4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5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6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년을 섬겼더니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 10 여호와와 그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웃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 그 땅이 태평한지 사십년에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사사기 3:1).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킬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요?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태도와 동기와 욕망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 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종 되었던 신분에서 탈출하여 광야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고 승전고를 울리며 약속의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혐오스러운 바알 숭배를 선택했습니다. 수치스럽고 음란한 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 관해 계시하신 모든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방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유행을 따라가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언약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길 원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다른 그 어떤 목표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길— 개인취향에 맞는 선택이나 기준 등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에 대한 혐오, 사악한 반역에 대한 미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끔찍한 모욕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죄와 타협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죄와 함께하는 평온한 날이란 것조차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민족들과 같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방민족처럼 대하셨습니다. *'25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27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시편 18:25-27).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그 분의 백성들을 벌하

기 위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축복들 대신 그들은 약탈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억압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악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그들을 다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지도자이자 군인인 옷니엘을 일으키셨습니다. *'11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12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3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취한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사기 1:11-13). 그러나 그의 승리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옷니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승리와 평화를 전해준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들을 수행합니까? 우리의 과거 —가족, 신앙, 양육 등이— 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켰습니까? 그리고 나이 —옷니엘은 75세가 넘었으며 아마도 90대였을 것입니다— 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92:14에서는 *'14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벌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가져오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비통하게 하시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게하기 위해 그 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시험하심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